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0년도 표어 ☉

하나님을 기쁘시게 (요8:29, 시37:4)

☉ 행동지침 ☉

- 1.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교회
- 2. 성수주일을 철저히 실천하는 교회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의 모범이 되는 교회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558-2107 www.seoulchurch.or.kr

시편강해

하늘과 땅에 계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148:1-14)

Praise the Lord, who is in the heavens and the earth

(Psalm 148:1-14)

본편은 누가, 어디서 찬양과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는 질문에 모든 사람이 높은 하늘로부터 땅의 낮은 곳에서까지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Jong-yun Lee (Senior Pastor)

Psalm 148 asks us, "Who worships God?, and "Where do they worship and praise the Lord?" The psalm answers that all people everywhere must worship the Lord, wherever they are, whether from the heavens above, or on the earth below.

1. 하늘에서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 찬양의 말은 언제 어디서나 시공에 구애됨이 없이 드러져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천사들과 천체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을 찬양하기에 너무 높은 곳은 없습니다. 하늘 높은 곳이 여호와 찬양으로 충만할 때 그것은 더욱 높고 아름답습니다.

본시의 처음 5절에는 '찬양하라'는 말이 9번이나 나옵니다. 주의 종들이나 주의 일을 찬양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 분은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1. Praise the Lord from the heavens above

The word of praise, 'Hallelujah,' must be offered to God, regardless of space and time. All angels and heavenly hosts must also praise the Lord. Nothing is greater than the place where praise is lifted to the exceedingly highest God. When the heavens above are full of praise, that praise becomes higher and more beautiful than any other thing. In this psalm, the first part of the five verses appears 9 times. "Only praise the Lord, but not His servants and their work." God deserves all praise.

2. 땅 아래에서 찬양하라

하늘에 있는 천사와 모든 천체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7-12절에서는 짐승뿐 아니라 불과 우박, 눈과 구름과 광풍, 산과 언덕과 백향목, 심지어는 무생물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 같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터이니 어리석은 인간들은 피조물을 오히려 섬기려고 합니다(롬 1:22-23).

그러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은 그 무엇보다 위대하고 그의 영광은 하늘과 땅에서 가장 뛰어나시기 때문입니다.

2. Praise Him from the earth below

If all the angels and heavenly hosts are worshipping the Lord, then all creatures on earth need to worship Him also. Verses 7-12 show us that, not only the creatures but also the lightening, hail, snow, cloud and stormy winds, as well as the mountains, hills, cedars, and even inanimate objects should praise the Lord. And just as nature worships God, all creatures should praise the Lord. However, man's foolishness leads them to worship His creation (Romans 1:22-23). Every human being must worship the Lord, because His name alone is exalted and His splendor is above the heavens and the earth.

3.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찬양받으시리로다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것임을 안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14절의 '뿔'은 강한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약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과거 이스라엘에 하신 것처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와 교회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를 강하게 하십니다.

3. The Lord receives praise from His people

It is right that all human beings should worship God, but the psalmist realized that they didn't. He acknowledged that only those who had experienced God's salvation could worship Him.

The hom in v. 14 represents strength. When the Israelites were exiled from Egypt, they were weak, but God made them strong. And the Messiah came through Israel. So, just as God had strengthened Israel, God strengthens us. He makes Christians strong through the church and its message, so they can worship Him.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뻐하는 무리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My beloved christians!

For the sake of your heavenly Father and God's glory, do you confess that Jesus is Lord? If so, you must take part with those who rejoice in Jesus' death and resurrection. You must praise Him and serve Him. By finding joy in the Lord and praising Him, I earnestly pray that you will become God's faithful peopl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CTS,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라디오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종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인터넷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한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오늘은 맥추감사절

주일에배 - 성찬식 / 찬양예배 - 교육1국 특별 순서

오늘 우리교회는 맥추감사절로 지킨다. 맥추감사절은 밀과 보리의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봄에 농사를 지어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이다. 유대민족은 유월절 다음날로부터 계산하여 50일째 되는 날로 지킨다. 오늘 주일에배시간에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하고 맥추감사 헌금도 드린다. 그리고 찬양예배 시간에는 교육1국 어린이들이 준비한 특별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한 주간이 되도록 기도한다.

『성숙한 장로교회』를 위한 장로교의 날

7월 10일(토) 오후2시 / 다락방 모임은 장충체육관에서

7월 10일(토) 오후2시부터 5시까지 장충체육관에서 2010 장로교의 날 행사가 열린다. '성숙한 장로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는 장로교의 날 행사는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종윤 목사, 이하 한장총)가 주최하고, 한장총 장로교의 날 준비위원회가 주관, 한장총 소속 28개 교단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총 4부에 걸쳐서 진행되는 장로교의 날 행사는 1부 감사와 찬양, 2부 대회장 이종윤 목사의 개회사 및 개회선언, 3부 장로교 전통에 따른 연합과 일치 예배, 4부 한장총 비전 제시와 폐회식으로 마치게 된다.

장로교의 날 개최에 앞서 한장총은 지난 6월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① 한교단 다체제 ② 2012년까지 '하나인 장로교단'조직 ③ 2015년까지 복음화된 통일 조국 성취를 제안했다.

이종윤 목사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들을 장로교의 날 행사에 초청하며 장로교의 정체성 확립과 한국교회의 부흥과 세계교회의 방향을 제시하고 견인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이 뜻 깊은 자리에 적극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금주 다락방 모임은 이날 대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특히 대청부 젊은이들의 참여를 권장한다.

- < 장로교의 날에 대한 대담 편성표 >
- CBS TV "포커스 인" 7월 7일(수) 오후 12시 30분
 - 재방송 7월9일(금) 오후 12시 30분, 7월10일(토) 오후 5시, 7월 11일(주) 오후 11시
 - CTSTV 본방송 - 7월 7일(수) 오후 2시10분
 - 재방송 - 7월9일(금) 새벽 2시10분



일 교단 다체제 한국장로교회를 제청한다

-7월10일(토) 장로교의 날에-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종윤 목사)는 7월10일(토) 장로교의 날에 찢기고 분열된 한국장로교단을 전통적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에 입각한 한 교단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선교, 봉사, 통일, 문화, 복지 등을 연합하여 할 수 있는 한교단 다체제 제도를 한국교회에 제시한다.

개혁주의 신학의 창안자인 요한 칼빈은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기위해 나는 로마 카톨릭을 떠난다."고 하면서 그러나 루비곤 강을 10개를 건너서 교회가 연합할 수만 있다면 나는 강들을 건널 것이라 했다.

칼빈의 연합원칙은 단순했다. ①교회의 표지 즉 말씀과 성령이 같으면 조건 없이 연합해야 한다. ②본질적인 교리와 비본질적인 교리를 구분하여 본질적인 것이 같으면 연합하라 ③그리스도의 머리되심을 교회일치의 전제조건으로 강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진리는 포기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다. ④중도주의적 교회일치 원칙을 제시한다. 루터와 츠빙글리, 로

마 카톨릭과 급진주의 중간의 길을 택하였다. 알곡과 쟁정이 함께 섞여있지만 끊임없이 개혁되는 개혁교회 즉 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 est(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를 원칙으로 삼고 연합을 추진했다.

2012년 한국장로교 총회 형성 100주년에는 일교단 다체제로 거듭 태어난 한국장로교회가 되기 위해 기도하고 지도자의 각성과 하나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기다려 보자. 한국장로교회가 한 지붕 아래 들어와 함께 살 때 한국교회 부흥은 물론 조국통일에도 촉발제가 될 것이다.

2015년은 광복70주년이 된다.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귀환의 기쁨을 안았던 이스라엘처럼 복음화된 통일조국의 원년으로 삼아 세계선교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 비전이 서울교회나 한국장로교회만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가 받은 비전이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Soli Deo Gloria



이종윤 목사(에딘버러 한국대회 대표회장)는 지난 6월 26일 토요일 인천 주안장로교회에서 열린 에딘버러 선교 인천대회에서 '케리그마의 실천으로서의 선교' 라는 주제강연을 했다. 이종윤 목사는 우선 세계 선교에서 중요한 위치에 서있는 한국교회의 역할을 역설하였고 선교에 대한 각 선교단체간의 개념 차이를 언급하면서 새로운 선교개념인 케리그마의 실천으로서의 선교를 제안했다. 글, 사진 : 오주명

2010년 아프리카 말라위 선교 기금을 위한 바자

오늘부터 말라위 단기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가 오늘부터 4주간 8층에서 열린다.

1, 2부 예배 후에 있을 바자에 성도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바란다.



2010년 2학기 장학생 선발 7월15일(목)까지 장학회로 제출

서울교회 장학회는 2010년 2학기 장학생 선발을 위한 장학생 추천을 받고 있다. 해당부서에서는 장학회 심사에 필요한 서류(교구 추천서, 교회학교 추천서, 자기소개서 혹은 신앙 간증문 중 택일,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를 완비하여 7월15일(목)까지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 특기자를 제외한 지난 학기 수혜자는 제외된다. 위 기간 내에 추천이 없는 부서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아멘관현악단 단원 모집

아멘관현악단에서는 악기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에 관심 있는 여러 성도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오보에, 호른, 트럼펫, 피아노, 현악기, 관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성도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남녀노소 불문하며 음악 전공자뿐만 아니라 비전공자의 지원도 환영한다. 자세한 문의는 단장인 정인주 집사(010-7277-7400)에게 연락 바란다.

제 38회 한국기독교학술원 공개강연회

한국교회와 W.C.C.



한국기독교학술원이 오는 2013년 W.C.C. 제 10차 총회 한국 유치를 앞두고 '한국교회와 W.C.C.'를 주제로 제 38회 학술원 공개강연회를 열었다.

지난 6월 28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강연회는 교계 지도자, 신학자, 목회자, 일반성도 등 4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다.

W.C.C.(세계교회협의회)는 제 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8년, 에큐메니컬 운동에 기원을 두고 생활과 실천, 교회의 실제 활동, 신앙과 직제 운동 등을 목적으로 조직되었으나 W.C.C가 추구하는 교회의 일치, 즉 에큐메니즘이 과연 성경적인가, W.C.C는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하는가, W.C.C는 영혼 구원보다 사회구원을 더 중요시 하는가 등의 문제로 1959년 대분열이 일어났고 한국교회 역시 W.C.C와 관련해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진 가운데 W.C.C. 제 10차 총회를 한국교회가 유치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한국기독교학술원은 이형기 박사(장신대 명예교수), 김길성 박사(총신대 부총장), 박종화 목사(경동교회 담임), 양낙홍 박사(고신대 교수), 이승구 박사(합신대 교수), 박성원 박사(영남신대 교수), 권호덕 박사(백석대 교수), 임희국 박사(장신대교수) 등 진보와 보수 진영이 한 자리에서 강연과 논쟁을 통해 W.C.C의 올바른 이해와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강연회를 열었다.



이종성 목사(기독교 학술원 원장)는 경건회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화과와 인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랑으로 음성을 들려주시며 우주를 통전적으로 지배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도 이번 강연회를 통해 에큐메니칼과 에반젤리칼의 다름없이 하나의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 날 강연회에서 보수측은 "W.C.C의 신학은 신학적 자유주의로 인해 복음이 약화되고, 종교다원주의를 넘어 혼합주의 경향이 깊어지고 있으며, 기능적 교회론을 중시함으로써 교회의 세속화를 가중시키고 성경적 일치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진보측은 "W.C.C는 특정한 신학이나 교회 개념 위에서 서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거대 교회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다. W.C.C는 교회의 사회참여나 정치참여라기보다는 그 사회적 상황에 대한 복음의 선포이자 신앙의 증언이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W.C.C의 종교다원주의나 혼합주의에 관련해서도 W.C.C는 타종교와 교리를 섞은 적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종교간 대화에 나설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양측의 팽팽한 논란은 발표와 논쟁 후 패널 토의에서도 이어졌는데 진행을 맡은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는 W.C.C. 총회가 한국에 유치된 만큼 무조건 반대하고 미워할 것이 아니라 진리로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하며 한국교회가 세 가지의 문제, 곧 타종교를 수용하는지의 문제로, W.C.C는 분명하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여줘야 할 것과 W.C.C가 하나님의 선교를 앞세우면서 지나치게 사회 정치적인 차원에 관심을 갖게 아니냐는 것에 관련해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의 균형을 이루라는 것, 마지막으로 W.C.C가 말하는 '가시적 일치', 혹은 '구조적 일치'를 '성경적인 일치'와는 거리가 있으므로 교회의 일치는 반드시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한 한국교회 입장을 W.C.C에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청중의 박수 속에 본강연회의 결론을 분명하게 맺었다.

글 : 허숙 권사 / 사진 : 유은경집사 (편집부)

신앙강좌 1부를 수료하며

진리의 말씀을 하나 하나 알아가면서

박석현 집사(3교구)



저는 2004년 5월에 아내 김점숙권사를 따라 서울교회의 치마폭 교인이 되었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11:40)"는 말씀을 붙잡고 주일예배를 비롯해 각종 예배와 모임에 나름대로 열심히 참석하여 이종윤목사님 설교말씀을 통해 기독교 신앙에 깊이 감동받고 심취되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음 한 구석에 체계적으로 신학지식으로 채우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신앙강좌 1부에서 작년에는 김영한 목사님의 성경론, 기독교론을 거쳐서 올해 상반기에는 신론공부를 통해 기독교 교리체계를 제 나름대로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목사님의 신학적이면서도 구수하게 설명하시는 강의 내용이 교회 출석이 얼마안된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과 빛이 되고 사랑이 된다는 사실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요15:5)"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부터는 나 자신 영적 성장과 아내의 신앙을 기대고 그저 따라다니는데 만족한 치마폭 교인을 졸업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중요한 기독교리인 "교회론"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성경을 공부할 때 오는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 진리의 말씀을 하나 하나 알아가면서 내 속에서 넘쳐나는 감사한 마음과 하나님 사랑을 통해 참된 기독교인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앙강좌반 오늘 개강

오늘 부터 12시 40분에 하반기 신앙강좌가 개강한다. 신앙강좌1부는 904호, 2부는 701호에서 하반기 강좌를 시작한다. 체계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려는 성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

만민에게 전도 - 터키 2010 에베소 세계 연합 기도 대회에 참석하고



'2010 에베소대회' 도전과 교훈

김요섭 선교사(터키어권선교회)



오늘날 이 지구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 싸움은 십자가와 초승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십자가와 초승달 전부 유일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상징물이다. 처형과 고문의 도구였던 십자가는 예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의 상징이 되었다. 한편 초승달은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알라의 음성을 들었던 때가 초승달이 떠 있던 밤이었으며, 달이 해가 있음을 증거하고 밤을 비추는 것 같이 초승달은 어둠을 비추는 알라의 영광이요 광채라고 무슬림들은 믿고 있다.

이번 2010 에베소대회와 향후 계속될 연합 기도 운동으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파급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다. 그것은 첫째, 그 땅에서 현지 교회와 성도들의 진정한 연합 운동의 시작이고, 둘째, 그 땅에서의 진정한 회개 운동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용서, 사랑의 사역의 시작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땅에서 곧 시작될 고난과 핍박에 대비하여 모든 현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무장을 준비시키는 것이 그것이다.

끝으로 이번 에베소대회는 그 땅에서의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며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이들의 동일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은 그 땅에서 보이는 교회나 교인들의 수가 늘어나는 수적인 증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 땅에서 부흥을 주도하는 주체는 그 땅의 사역자들이나 현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심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그 땅의 부흥은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시어서 직접 이루어 나가는 역사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결과인 것이다.

2010년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

7월18일(주) 교육1국 - 여름성경학교를 시작으로

2010년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확정되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는 7월18일(주) 교육1국(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을 시작으로 계속된다.

뜨거운 여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여름성경학교 수련회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한다. 교회학교별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부서	일시	장소	주 제	강 사
영·유아부	7.18(주)~7.20(화)	서울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요	김은숙 전도사
유치부	7.18(주)~7.20(화)	서울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기쁨으로 전해요!	황광 목사
유년부	7.18(주)~7.20(화)	서울교회	나 주님의 기쁨되기 원해요	김안성 목사
초등부	7.18(주)~7.20(화)	서울교회	하나님과 동행해요	서명철 목사
중등부	7.26(월)~7.28(수)	아카데미온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우리의 비전	이중운 목사, 장석남 목사, 박종민 목사
고등부	7.22(목)~7.24(토)	아카데미온	하나님의 기쁨, 우리의 기쁨	이중운 목사, 유문진 목사, 노현상 목사, 문정훈 목사
사랑부	7.24(토)	아카데미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문정훈 목사
대학부	7.21(수)~7.24(토)	아카데미온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는 청년	이중운 목사, 노현상 목사, 문정훈 목사, 유문진 목사
청년1부	8.12(목)~8.14(토)	아카데미온	하나님의 기쁨 - 그 거룩한 갈망!	이중운 목사, 장석남 목사, 구희숙 목사
청년2부	8.12(목)~8.14(토)	아카데미온	하나님의 기쁨 - 하나님의 말씀	이중운 목사, 정승길 목사, 유문진 목사, 문정훈 목사
디아스포라	8.6(금)~8.7(토)	아카데미온	하나님의 기쁨 - 예배의 기쁨	이중운 목사, 박광일 목사
에바다	7.29(목)~7.31(토)	아카데미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중운 목사, 임규현 목사
신혼가정부	8.13(금)~8.14(토)	아카데미온	결혼, 가정 그리고 기쁨	이중운 목사, 한상은 목사
영어예배부	7.30(금)~7.31(토)	아카데미온	하나님께 영광 - 하나님을 즐거워함	조슈아 목사
장년부	10.2(토)	아카데미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장년부	박노철 목사, 한상은 목사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교육1국 어린이들의 맥추감사절 감사찬양으로 드린다.

한문영 집사의 지휘로 유아부는 '예수님사랑' 외 2곡을, 유치부는 도지혜 선생의 지휘로 성경암송(롬 6:23)과 '하나님숨씨' 외 2곡을, 유년, 초등부 연합찬양대(지휘/김지현 선생, 반주/박재원 선생)는 '감사해요' 외 2곡을, 그리고 초등부는 우수진 선생의 지휘로 'In the Secret' 외 1곡을 찬양드린다.

폐 휴대폰 모이기 운동

우리교회는 대치1동사무소와 함께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원재활용 운동인 '폐 휴대폰 모이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성도들의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휴대폰을 교회로 가져오면 이를 모아 대치1동사무소에서 가져간다. 자원재활용을 위해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접수는 사무국에서 한다.

동정

■ 이중운 목사는 7월4일(주일)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1910에 단버려선교사대회 100주년 기념 한국대회의 마지막 순서인 부산대회 개회예배 설교를 한다. 10일(토) 장충체육관에서 장로교의 날 행사를 주관하고 정통개혁주의 예배 시 설교를 하며, 각 교단장, 총무, 신학대학 총장들의 화합과 일치를 이룬다.

■ 김극영 성도(4교구 김종윤 집사 이중동 권사 장남) 현대자동차그룹 미주법인 광고담당이사

■ 주간식당봉사: 이삭선교회(7.4) 도르가전도회(7.11)

■ 금주의 식사: 임상현 장로서희숙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 일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울교회, 우리가정 되게 하소서.
2. 세계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3. 7월 10일 장로교의 날 행사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4. 북한의 군사적 도발 중단되고 복음화된 통일조국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교회오시는 길

